

스키타이계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文에 대한 研究

- 單獨動物文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nimal figures in Scythian Ornament

-focusing on the single animal figures

水原大學教 生活科學大 衣類織物學科
副教授 金 文 子

Suwon Univ. Col. of Human Ecology Dept. of Clothing & Textiles
Associate Professor : Kim, Moon-Ja

● 목 차 ●

- | | |
|------------------------|---------|
| I. 序 論 | IV. 結 論 |
| II.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遺例 | 참고문헌 |
| III. 스키타이계 動物文 樣式과 像徵性 | |

<Abstract>

The background of single animal figures was originated from those northern mounted nomadic groups, which was Scythian style Culture.

The art of the nomads working in the Scythian idiom was small in size and essentially decorative in intention, yet practically every object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any unit in this group of people possesses many of the attributes essential to a real work of art. Clarity of conception, purity of form, co-ordination of rhythm and balance, and not least, an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the material employed were triumphantly blended by the Eurasian nomads to produce a distinctive style.

In Scythian art the multitude of animal representations well illustrates the reoccupation of this nomadic people with animals in their environment. Usually only wild animals are represented. Commonly depicted are: stags and deer, lions or other large cats, eagles, birds heads (perhaps of ravens), griffins, snakes, hares, fish, goats, rams, boars, moose (elk), yak, sheep and bears.

The occasional exception to the wild animal rule is domesticated horses - important because the Scythians were horse breeders and their whole culture revolved around their dependence on the horse.

The nomads had little reason to create object in honour of gods or men, but they had an instinct for beauty and the wish to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animal forms in which they had come to delight

The Scythians tried to combine in a single rendering all the salient points of the animal they were delineating. They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in the difficult task of showing in a single image the various and often incompatible poses assumed by a single animal in the course of its life.

Zoomorphic motifs were used not simply for decorative effect, but to turn the object into amulets, with magical power to assist in hunting, and to protect the owner from harm.

I. 序論

‘스키타이’라는 명칭은 B, C 7-3C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遊牧騎馬民族을 지칭하는 말이나, ‘스키타이계’ 문화라는 것은 이들 스키타이인들의 文化樣式을 根幹으로 하여 북방유라시아 스텝 지대를 지나는 ‘초원의 길’을 통하여 각지로 전파되었던 廣義의 스키타이문화를 말한다.

‘스키타이계’ 문화는 遊牧을 위한 移動生活이나 騎馬活動 등 遊牧騎馬民族 특유의 環境的 요청에 맞추어 창조되었으므로, 農耕民族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취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들 상호간에는 분포 범위의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類似性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服飾, 武器, 馬具, 車具 등에서 同類의 것이 많고 그들의 신앙 속에 강한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술품들은 특유의 動物意匠¹⁾으로 대표되며 呪術性과 實用性이 가미되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역으로 傳播되었다.

스키타이계에 속하는 遊牧民들의 藝術作品은 크기가 작고, 본질적으로 장식적이었으며, 모든 작품들은 예술에 대한 헌신을 위한 모든 구성원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개념, 형태의 순수, 리듬의 동등과 균형의 명쾌함, 그리고 적어도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이해와 경외는 유라시아 유목민들에 의해 특징적인 스타일들을 혼합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遊牧民들은 신이나 인간에 대한 경외심으로 물체를 창조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들을 둘러싼 동물들의 形態에 대한 욕구와 美에 대한 本能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 스키타이계 文化가 유입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B. C. 7C - B. C. 6C년경부터 러시아

의 예니세이강 상류의 미누신스크지방에서 內蒙古의 綏遠지방에 걸친 騎馬 靑동기인들의 南向移動이라는 큰 물결이 韓半島에 까지 여파를 던지게 되어 우리 나라에도 미누신스크-스키타이-綏遠文化가 뒤섞인 複合文化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²⁾

古代 韓國 文化가 北方文化 특히 스키타이系文化와 그 어원이나 신화, 원시신앙 등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靑동기에 간혹 나타나는 약동하는 동물군의 描寫는 스키타이系 動物文樣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밖에 다른 遺物들에서도 古代 韓國 文化의 源流가 중국 漢文化가 아닌 北方文化 즉 스키타이系文化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가 된다.

動物意匠은 내륙유라시아 유목기마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들의 복장을 생각할 때 그들의 문화를 특징짓는 動物意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³⁾

스키타이인들은 특히 자그마한 藝術品에 뛰어난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섬세한 彫刻品, 蠟法으로 주조된 靑銅製品들과 打出된 金銀製品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장식과 공예품의 출현은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스키타이 사회의 계급분화와 관계되어 있다. 사회 상류층을 형성하는 군사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1) H. Rubissow, *Art of Asia*,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Inc., 1954, p. 113.

2)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73, p. 79.

3) 문광희(역) 杉本正年,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1995, p. 469.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물품들은 동물상이나 싸우고 있는 야수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스키타이 動物양식”으로 불리는 특징적인 생기찬 양식으로 전환되어 있다.

스키타이文樣이라 불리는 독특한 金製 또는 靑銅製의 動物文이, 西로는 黑海 주변으로부터 東으로는 몽고리아, 綏遠地方까지, 스텝地帶 각지의 유적으로부터 출토되고 있는 것도 초원의 길을 둘러싼 東西文化의 交流와 遊牧諸民族에 있어서의 動物文의 유행을 잘 나타내고 있다.⁴⁾

많은 제품에 나타나는 動物 文樣은 그들 특유의 스키타이 양식으로써, 遊牧민족이 가지는 동물에 대한 관심과 考察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 자신의 추상적 藝術감각을 발휘하고 거기에 그리스 미술의 사실성, 오리엔트미술의 환상적 기념물 성을 加味, 신선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⁵⁾

스키타이 동물양식은 野生動物인 굽동물, 猛獸, 猛禽, 그리고 가축류, 幻想動物 등의 소재와 단일장면, 투쟁장면, 반정립장면 등의 구성, 기법, 각 동물이 갖는 기본 속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굽동물에는 사슴, 양, 염소가, 맹수에는 표범, 호랑이, 사자, 늑대가, 맹금에는 독수리와 매가, 말 등의 가축류, 환상동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리핀이 흔히 묘사되었다. 그 외에도 굽동물이자 맹수인 멧돼지도 자주 표현되는 소재였다. 그 외에 백조, 뱀, 사냥개, 들토끼, 물고기, 수뱀지, 고라니, 곰등도 자주 등장한다.⁶⁾

스키타이 동물양식에서 새는 上界[：天上界]를 굽동물은 中界[上界와 下界와의 중간단계]를, 맹수와 뱀은 下界[：天上界에 대한 인간세상]를, 멧돼지는 中界와 下界의 중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들은 동물전체, 신체의 전반부, 후반부, 혹은 일부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개체들과 함께 표현되었다.⁷⁾

단독으로 표현되는 짐승들도 잠재적 공격자, 잠재적 피공격자로 간주되지만 스키타이 미술자들은 짐승들의 몸을 일정한 형태의 장신구 틀 안에 넣기 위해 기발한 형태로 짐승의 몸을 뒤틀고 압축함으

로써 짐승이 가지는 힘과 탄력을 생생하게 나타내는데 성공하고 있다.⁸⁾

스키타이 동물양식은 복식품을 포함한 馬具나 武器 등의 대부분의 器物 등에서 등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식, 즉 裝身具나 벽걸이 등의 직물문양 등에 관련된 장식품에 표현된 動物文 특히, 동물 한종류만을 묘사한 單獨文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스키타이 動物文에서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2마리 이상의 동물이 대치하는 動物鬪爭文은 별도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우리 복식의 원류를 이루는 스키타이계 裝飾品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樣式을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 裝飾品에 나타난 스키타이 동물문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裝飾品 하나하나에 나타난 스키타이 動物文을 지역별 시대별로 분류하여 그 樣式과 像徵性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遺例

스키타이 動物文을 보여주는 스키타이 문화지역은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지역에 퍼져 있다. 그중 특히 스키타이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화권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코반문화, 스키타이문화, 사키문화, 알타이문화, 타가르문화, 사르마타이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스키타이 動物文을 연구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먼저 초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의 기원전 2천년기와 1천년기 사이의 코카서스지방 코반문

4) 岡丙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長澤和俊 著, 서울: 民族文化社, 1993, p. 25.

5) 김원용, “스키타이족과 미술”,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295.

6) <http://pages.ssnnet.com/7genex7/basic.html>

7) 정석배, “‘사카’와 스키타이 동물양식”, 중앙아시아학회 발표논문, 1999, p. 7.

8) 김원용, op. cit. p. 295.

화를 들 수 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코카서스 청동제품은 코카서스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적 형태와 다양한 장식을 가진 여러 가지 목적의 풍부한 상품들을 창조하였다. 그중 특히 옷에 붙은 청동제 액세서리의 수많은 종류 중에서 帶鉤와 브로치와 핀, 손목과 무릎에 붙이는 드리개 장식[垂飾]은 매우 독창적이다.

스키타이문화 분묘유적의 연구와 발굴은 20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1763년에 스키타이 前期(B. C. 7C 후반-6C)에 속하는 수많은 찬란한 金銀製 遺物이 부장된 대형 古塚이 우크라이나의 엘리자베트그라드(Yelizavetgrad: 현 Kirovograd)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스키타이 遺物들의 체계적 연구는 1830년 Kerch 근방 Kul-Oba고분 발굴로 시작되었다. 돌무덤에서 발견된 B. C. 4C의 풍부한 埋葬은 수많은 귀중한 그리이스제의 장신구류를 다량 부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兩端에 騎馬人物像이 조각된 금목걸이 네명의 스키타이인이 묘사된 琥珀金製 의례용 용기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와 북부 코카서스의 고분발굴은 1859년 帝國考古學委員會의 성립과 더불어 강화되었다. 1863년 우크라이나의 Chetomyk 고분에서는 야생마를 길들이고 있는 스키타이인들이 묘사된 은제 Ampora병을 발견하였다. 1912년과 1913년에는 Solokha고분의 발굴이 이루어져 기원전 4세기대의 그리이스장인이 제작한, 전투중인 스키타이인들이 조각된 황금빛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⁹⁾

사키문화는 표트르 1세(재위기간: 1689~1725)의 시베리아 수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로 표현된 帶鉤나 帶金具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것은 완벽한 표현성, 활력성, 크고 작은 대상의 구성상 숙달로 유명하다. 수집된 器物의 대부분은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중 일부는 알타이 동물양식의 미술양식과 유사하다. 표트르 수집품에는 다른 스텝지역의 스키타이 미술과 달리 그리스 미술의 영향이 보이지 않고 페르시아 미술의 영향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사키부족이 기원전 4세기경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 기록과도 일치한다. 또한 나선형 금팔찌에서는 사르마티아문화와의 연

관도 강하게 느껴진다.¹⁰⁾

알타이 문화는 192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고고학자 그라즈노프와 루덴고에 의해 착수된 알타이산지의 고고학적 발굴로 알려지게 되었다.¹¹⁾ 특히 B. C 6~4C에 해당하는 유명한 Pazyryk 무덤군 출토의 독특하고 풍부한 부장품들로 유명하다. 고대 알타이에는 타 스키타이문화와 마찬가지로 일정단계에 어떤 제한된 주제가 사용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지고 또다른 주제로 대체된다. 기원전 6세기의 알타이에는 사자상이 나타나나 기원전 5세기에는 사라진다. 기원전 6세기에는 野獸의 눈과 갈기를 가진 그리핀이 가장 유행하였는데 그것은 고대 오리엔트 미술에서 차용된 이미지의 지역적 변형이다. 기원전 6세기부터는 그리핀 말고도, 빨달린 새, 날개달린 늑대, 날개나 빨이 달린 호랑이, 등의 다양한 환상의 알타이 문양이 나타난다.

타가르문화는 남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중류역의 미누신스크 분지에서 B. C 7~1C까지 존재하였으며, 스텝지대의 계곡과 구릉 곳곳에서 발견되는 무덤은 특이하고 出土品도 풍부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타가르 부족들의 이미지와 관념의 세계는 장식과 응용미술로 有形化되었다. 타가르 동물양식에 애용되는 像은 산양과 食肉鳥이다. 곰, 멧돼지, 늑대, 사슴, 호랑이도 이용되며, 말과 당나귀, 조류도 드물지만 나타난다. 타가르 미술양식은 동물 형상을 일반적인 간결한 體積으로 묘사한, 독특한 양식 기법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곳에는 강한 생동감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정적으로 고요하게 서있는 동물을 볼뿐이다. 알타이 유목미술의 특징이던 괴이하고 익살스럽기까지한 장식이 없고 단순, 소박하며, 스키타이 미술처럼 추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타가르 장인들은 묘사된 동물의 특징을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사르마티아 문화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2세

9)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p. 18-20.

10) Ibid, pp. 162-163.

11) 문광희(역), op. cit, p. 440.

기까지 존재하였다. 흑해 北岸 스텝지대의 사르마티아 문화가 가장 번성한 때는 기원 후 1~2C이다. 그때 사르마티아인들은 불가와 다뉴브 사이의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였다. 의상장식 즉, 팔찌, 목걸이, 帶金具, 帶鉤, 향수병과 馬具 장식에서 표현된, 소위 "사르마티아 動物樣式"의 金製 유물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이들 모든 유물들은 수사슴, 큰뿔사슴, 산양, 말, 고양이과 맹수, 늑대와 상상의 怪獸 따위의 동물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사르마티아 동물양식은 동물 몸통과 머리의 해석에서 그리고 대상구조의 전통적 묘사방법에서 표현된, 독창적인 像의 양식화에 의해 특정 지워진다.¹²⁾

우리 나라도 B. C. 700~B. C. 600년경 騎馬·靑銅器人들의 南向移動과 함께 스키타이系 文化의 특색을 나타내는 遺物로는 이상한 형태의 방울을 단 여러 가지 銅製品, 柳葉狀 透孔이 뚫려 있는 靑銅竿頭飾, 多紐細文鏡이라 불리는 거울, 허리에 두르는 帶鉤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靑銅器에 간혹 나타나는 약동하는 動物群의 描寫는 스키타이系 동물문양을 보여주는 예이며, 또한 것으로 北方文化¹³⁾ 즉, 스키타이系 文化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가 된다.

특히 革帶의 끝에 달려있어 다른 쪽 端의 구멍 속에 꽂게 되어 있는 帶鉤에 사용되는 동물형양식은 스키타이계 장식의 가장 대표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구려 관장식으로 생각되는 유물에도 動物文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스키타이계복장의 전래로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

III. 스키타이계 動物文 樣式과 像徵性

1. 스키타이계 動物文 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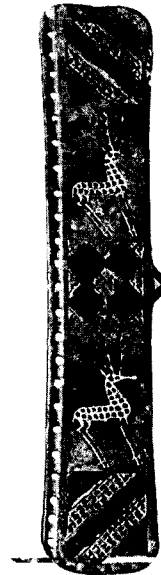
(1) 코반 문화 動物文

스키타이 동물문의 기초를 이루는 이들 복식품에 보이는 코카서스 動物文은 미술적 기법에서의 엄격한 간결성, 단순성과 억제, 형상의 해석에서의 뚜렷한 寫生, 그리고 동시에 자연스러움과 생명력이 이

러한 양식의 특징적 요소이다. 묘사된 물체의 조형상 기법은 의도적으로 가장 강조하고자하는 특징, 예를 들면 사슴뿔같은-을 되풀이해서 나타나게끔 변형되었다. 응용성을 지닌 공예미술은 동물주의, 토테미즘과 呪術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C. 1천년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북코카서스 북오세티아 출토 청동 드리개장식이 있는데 길게 쪽뺨은 주둥이와 편평하게 바들린 뿔이 달린 양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뿔에는 사선으로 된 刻目이 있다. 걸기 위한 넓은 폭의 고리가 있다. 垂飾은 옷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동물의 像에 마법이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동시대 코반무덤출토 靑銅帶鉤(그림 1)는 細長方形으로 수사슴문양이 두곳에 새겨져 있는데 뚜렷하



〈그림 1〉 靑銅帶鉤
코반무덤출토-『스키타이황금』

12)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황금』, pp. 236-37, 258-59.
13) 崔淳雨, 『韓國美術』, 서울: 陶山文化社, 1982, p.13.
14) 金文子, 『韓國服飾文化的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1994, pp.74-75, 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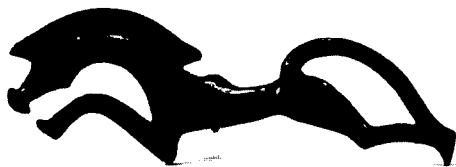
게 새겨진 사슴문양은 수직으로 서있는 두줄기의 뿔과 얼룩점으로 처리된 몸통내부, 곧은 선으로 표현한 뾰족한 다리가 강조되어 있다.

B. C. 1천년 중엽의 유물로 추정되는 Northern Caucasus Koban 무덤 출토 馬形帶鉤(그림 2)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청동제로 길이 12.9cm이며 갈기를 바짝 세우고 질주하는 말의 浮彫像으로 갈기 가장자리와 꼬리에 斜線文이 陰刻되어 있다. 나머지 표면은 평행선과 격자선이 얇게 새겨져 있다. 뒷면에 고리가 달려있어 帶鉤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코카서스 동물양식의 뛰어난 예로 동물 세계 중 숭배되는 대상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¹⁵⁾

(2) 스키타이 문화 動物文

B. C. 7C 유물로 추정되는 Dnieper Kirovograd Melgunov 무덤 출토 帶金具(그림 3)는 날개를 펴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猛禽像으로 귀족층 武士의 허리띠 장식으로 다른 16개의 장식판과 함께 출토되었다. 뒷면에는 가죽띠에 걸기 위한 고리가 달려 있다. 신체의 마디는 간결하고 깊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힘있게 구부러진 주둥이와 원래는 嵌玉되었던 커다란 눈을 가진 머리의 독특한 양식이 돋보인다. 스키타이 미술에서 유행한 모티브를 미적으로 윤곽 처리한 최초의 예 중 하나이다.

B.C. 6 C Kelesmes 무덤 출토 Diadem은 목부위에 에나멜 상감을 위한 구멍이 있는 그리핀 얼굴조각이 앞부위에 돌출형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테의 양 옆에는 양쪽 밑으로 긴 체인에 숫양의 머리모양이



〈그림 2〉 馬形帶鉤

Northern Caucasus Koban 무덤 출토-『스키타이 황금』

매달려 있다. 동 고분 출토 Buckle에는 에나멜과 호박 상감을 위한 페인 자국이 있는 원통형의 막대 양끝은 숫양의 머리를 조각해 장식하였다.¹⁶⁾

B. C. 6 C 초 Kuban Ulski Aul Barrow 1 출토 Gold Plaque 표범상은 옹크린 표범의 부조상으로 옷에 다는 장식판으로, 표범의 눈, 코, 고리와 발의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스키타이 미술의 동물상의 특징적 자세 중의 하나이다.¹⁷⁾

B. C. 5C경의 遺物인 Seven Brothers 古墳出土 팔찌(그림 4)는 양끝을 蛇頭로 장식하고 있다. 동 고분 출토 반지 중 한개는 보석위에 곱을 또 하나는 뱀뱀지를 새겨 넣었다. Solokha 古墳출토 Gold Torque는 양끝을 사자머리 장식을 매달고 있다.



〈그림 3〉 帶金具

Dnieper Kirovograd Melgunov 무덤 출토-『스키타이 황금』

15)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p. 51, 52.

16) M. I. Artamonov,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ova, 1966, p. 25, plate 25, 52, 53.

17)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pp. 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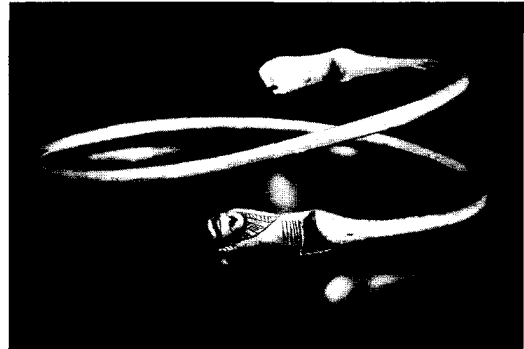
〈그림 4〉 팔찌
Scythy Seven brothers 고분 출토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그림 5〉 금제 귀걸이
Scythy Olbia 고분 출토-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Olbia 古墳출토 금제 귀걸이(그림 5)는 세환에 3개의 垂飾을 매달고 있는데,¹⁸⁾ 아주 단순화된 새모양이다.

B. C. 4C 초 Dnieper Solokha 무덤출토 Gold Plaque 사자상은 B. C. C 5세기말과 4세기 전반의 스키타이 미술의 독특한 양식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사자상에는 이전 시기의 몇몇 특징들 -특히 꼬리 끝의 猛獸 머리상-이 남아 있다.



〈그림 6〉 Torque
Dnieper Chertomlyk 무덤 출토
-http://www.hermitagemuseum.org/tmplobs/
F9UXB7J3PE07CQK76.jpg

빨이 있는 사자상은 스키타이 미술에서 매우 드문 주제이다. 同 古墳出土 Gold Plaque 수사슴상은 네 무릎을 꿇고 앉은 수사슴상은 기원전 4세기를 통해 스키타이 미술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애용되었다. 그것은 고전기의 연출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거쳤다. 즉 상의 비율이 달라져 머리는 올라가고 불과 귀, 눈이 변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네다리를 구부리고 앉은 수사슴은 犧牲된 동물로 생각된다.¹⁹⁾

B. C. 4 C Great Bliznitsa 고분 출토 금반지에는 상부에 옆드려 있는 사자상이 4마리 옆으로 나란히 부착되어 있다. 동 고분 출토 금동 팔찌는 양끝이 벌어져 있는데 그 끝에는 사자상을 조각해 장식하였다. 또하나의 금 팔찌는 前者와 거의 동일 양식인데 양끝을 숫양으로 장식하였다.²⁰⁾ B. C. 4 C Dnieper Chertomlyk 무덤 출토 Torque(그림 6)는 둥근 단면의 금줄을 한번 반 뒤틀어서 주조된 것으로 兩端이 지면을 누르고 있는 사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의 세부사항은 주로 음각으로 처리하였다.²¹⁾ 사자상은 고대 원형을 따라 주조되었다. 그러

18) M. I. Artamonov, op. cit. p. pp.39-43. Plate 131, 133, 134.

19)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pp. 111-13.

20) M. I. Artamonov, op. cit. p.74. Plate 279, 313.

21) http://www.hermitagemuseum.org/tmplobs/AXC644NTFLSZ6P306.jpg



〈그림 7〉 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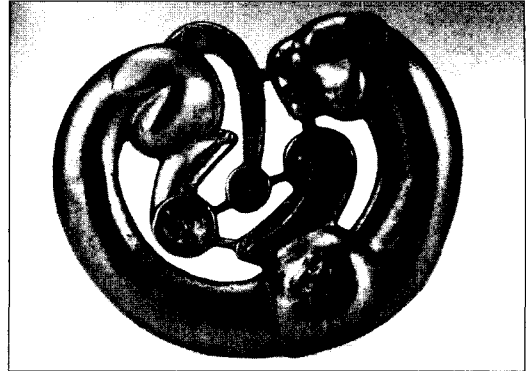
Dnieper Chertomlyk 무덤 출토-『스키타이황금』

나 사자상의 인상적인 圖式化를 고려하면 스키타이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동 고분 출토 반지(그림 7)에는 날개를 편 오리가 押印되어 있는 것으로 여자의 새끼손가락에 낀 것이다. 오리상이 매우 표현력 있게 만들어져 大家의 작품임을 증명한다. 오리는 세계의 어느곳- 물속, 땅위, 그리고 하늘-에서도 살수 있는 짐승으로 소유자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였다.²²⁾

(3) 사기 문화 動物文

표드르 1세의 시베리아 수집품중 하나인 사기문화에 속하는 B. C 5-4C 유물로 金製 帶鉤(그림 8)가 있다. 이것은 環狀의 표범 浮彫像이 鑄造된 것으로 길게 뽑힌 유연한 몸통이 반원형으로 만곡되어 머리와 꼬리가 맞닿고 있다. 꼬리와 다리는 몸통에 눌러 원의 내부를 채운 정교한 작품이다. 꼬리와 발끝 부분, 눈, 귀, 콧구멍과 열린 입은 원래는 嵌玉되어 있었다. 造形상의 기법과 보석세공 기법이 능란하게 결합된 작품이다. 뒷면에는 가죽띠에 부착하기 위한 고리가 세개 땀질되어 붙어 있다. 이같은 環狀의 猛獸 모티브는 스키타이-시베리아미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스키타이 動物文의 기본적인 주제의 하나인 이같은 環狀 모티브는 원초적으로는 왜곡된 형태로서 비록 본질적으로는 기술적 표현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편중된 예술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²³⁾

사기문화에 속하는 B. C. 5C에 속하는 금단추는



〈그림 8〉 金製 帶鉤

표드르 1세의 시베리아 수집품, 사기문화
- *The Symbol of the Beast*

鑄造된 단추 한쌍중의 하나로, 環狀의 말이 뒷다리는 움츠리고 앞다리는 앞으로 내민 채로 깊게 동새김되었다. 머리는 뒤를 쳐다보고 있고, 꼬리는 앞다리 사이를 지나 귀에 닿는다. 콧구멍과 입이 잘 묘사된 주둥이를 강조한 큰 머리가 인상적이다. 반원형의 큰눈과 짧은 귀도 움푹 파여 있다. 귀와 콧구멍, 눈, 발굽등의 감입부는 옥을 박아 넣었을 것이다. 뒷면에는 직물의 흔적과 옷에 매달기 위한 가로봉이 있다.

사기문화에 속하는 B. C. 5-4C 유물로 금제 목걸이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양분된 3개의 金管으로 만들어졌는데, 金管의 상하 끝부분은 긴 목을 가진 고양이과 猛獸의 머리모양으로 조각하였는데 긴목부분을 물결모양으로 도려내어 그곳에 嵌玉을 하였다. 동물의 머리는 큰 볼륨으로 처리되어 돌출된 앞머리의 옆면에는 눈동자와 콧등이 묘사되고 광대뼈와 양식화된 귀도 보인다. 눈에는 검은색의 嵌玉이 남아있다.

B. C. 3C 금팔찌는 투각된 구조팔찌로 팔지 정면에 浮彫된 말은 앞으로 넘어져 주둥이가 지면에 닿

22)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pp. 131-32.

23) Dogny Carter, *The Symbol of the Beast-the animal style art of Eurasia*, New York: The Ronard Press Co. 1957, p.28.

았다. 엉덩이도 구부러져 뒷다리가 말어깨 사이의 융기된 부분까지 닿고 있다. 목과 몸통은 가늘고 길게 뻗었으며 어깨뼈와 엉덩이는 둥글게 만들었다. 머리는 양식화되었고 눈과 콧구멍은 기하학적으로 묘사되었다.²⁴⁾

(4) 알타이 문화 動物文

알타이문화에 속하는 pazyryk barrow2 출토 B. C. 5C 時代の 두층의 가죽으로 時代の 표면은 두꺼운 가죽을 오려서 만든 透刻된 수탉상이 힘줄로 꿰매져 있다. 수탉장식에 입혔던 얇은 금박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새의 몸통과 꼬리, 뿔은 삼각형, 불방울, 반으로 쪼갠 편자모양 도려낸 장식으로 꾸며졌다. 그러한 양식의 기법은 고대 알타이와 소아시아 미술의 특징이다.

Pazyryk barrow2 출토 동물상은 B. C. 5C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오른팔 피부에 새겨진 文身像에



〈그림 9〉 사람의 오른팔에 새겨진 동물 문신
pazyryk barrow2 출토- *Frozen Tombs of Siberia*

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미라로 남아 있는 주검의 신체는 검은색 안료를 깊게 찢러 넣어 이루어진 문신으로 덮여 있다. 그중 특히 오른팔의 문신(그림 9)이 잘 보존되었다. 문신의 주문양은 동물들로서 손목에는 당나귀와 고양이 꼬리의 날개 달린 짐승이 있다. 그 위에는 질주하는 산양과 독수리부리의 사슴이 보인다. 사슴의 뿔에는 새머리가 달려있으며 비슷한 새머리가 목가와 긴 꼬리 끝에도 있다. 사슴 위에는 견치가 달린 짐승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새머리가 뿔위에 올려진 또 다른 사슴이 새겨졌다. 이 같은 문신은 주인공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 준다고 한다.²⁵⁾

Pazyryk barrow 2 출토 여성용 頭飾(그림 10, 10-



〈그림 10〉 여성용 頭飾
pazyryk barrow2 출토- *Frozen Tombs of Siberia*



〈그림 10-1〉 그림10의 도식화-『スキタイの藝術』

24)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pp. 174-77.

25) S. I. 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0, pp.110-12

1)에 표현된 鳥形飾의 꼬리부분은 일명 'Scythe-shaped' tail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²⁶⁾ 後述할 우리나라 고구려 冠裝飾(그림 15)에 그 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²⁷⁾

(5) 타가르 문화 動物文

남시베리아 타가르문화에 속하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출토 B. C. 5-4C의 것인 청동 帶金具(그림 11)에는 원형의 장식판위에 서 있는 자그마한 야생 당나귀상은 浮彫로 되어 있다. 바짝 선 귀가 달린 큰머리는 몸통에 거의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짧은 목에 갈기가 강조되었다. 어깨뼈 사이의 용기가 도드라져 보인다. 짧은 앞다리는 몸통과 좁은 홈으로 분리된다. 긴 꼬리는 뒷발의 발굽까지 처져 있다. 고심하면서 사실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像에 표현력을 강하게 준다. 뒷면에는 가죽띠가 지나가기 위한 고리가 두 개 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칸테레바야村 출토 B. C. 1-2C의 것인 청동제 帶金具는 가죽띠에 붙은 透刻된 長方形 장식판으로 소(Yak)상이 두 마리 浮彫되었다.²⁸⁾ 소는 측면으로 조각되었으나 수그린 머리는 正面을 보고 있다. 다리는 半歩자세이고 圖式化되었다. 머리와 목, 몸통은 큰 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



<그림 11> 靑銅 帶金具

남시베리아 타가르문화에 속하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출토-『스키타이황금』

되었다. 배와 다리의 긴털, 그리고 꼬리 끝은 앞모양으로 양식화되었다. 두소는 뿔과 귀가 서로 닿는다. 소들 사이의 위여백은 귀가 달린 양식화된 새머리가 장식되었다. 발굽은 삼각형으로 장식된 반면 뿔과 귀는 물방울 모양으로 파내었다²⁹⁾.

(6) 사르마티아 문화 動物文

사르마티아문화에 속하는 북코카서스 스타프로폴 카진카村 출토 B. C. 4C 유물인 금제 Torque(그림 12)의 양단은 이빨을 드러내고 땅에 엎드린 채 막 뛰어오르려고 하는 늑대류의 猛獸 형태를 하고 있다. 맹수의 자세와 구도상의 비율, 양식적인 도안, 장식의 연출에서 남부 우랄지방과 남부 시베리아의 유물들과 유사하며 그것은 이들 유물의 기원이 오리엔트에 있음을 암시해준다.

로스토프 베솔리 무덤 출토 B. C. 1-2C 유물인 청동제 帶鉤(그림 13)는 長方形 틀안에 네무릎을 꿇고 앉은 낙타상이 삼입되어 있는 鑄造된 것으로 세부가 생략되고 주로 윤곽만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다. 동물의 외곽을 따라 비스듬하게 음각된 짧은 선들은 낙타의 가죽털을 나타낸다.

볼가강 下流域 사라토프 살로마티노村 B. C. 1C -



<그림 12> 금제 Tor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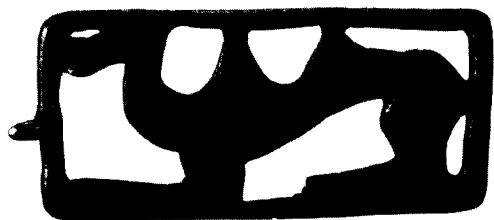
북코카서스 스타프로폴 카진카村 출토-『스키타이황금』

26) Ibid, p. 248.

27) 金文子, op. cit. pp. 74-75.

28) Dogny Carter, op. cit. pp. 52, 78.

29)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황금』, pp. 24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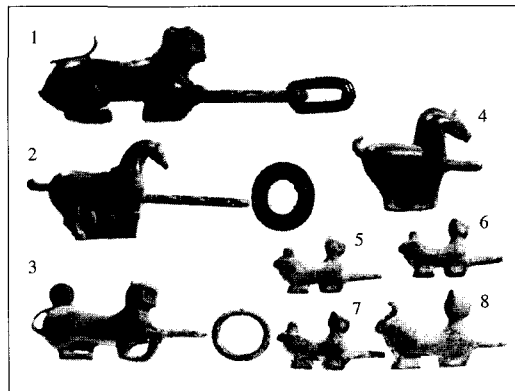
〈그림 13〉 青銅帶鉤
로스토프 베슬리 무덤 출토-『스키타이황금』

A, D, 1C 유물인 금제 팔찌는 금사를 나선형으로 7번 돌려 만든 팔찌로 兩端은 멧돼지의 주둥이, 염소의 몸통과 뿔, 그리고 猛獸의 긴 꼬리가 복합된 상상의 동물 조각상으로 장식되었다. 怪獸가 무서운 힘으로 뛰어 오르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앞다리는 안쪽으로 접고 뒷다리는 뒤로 쭉 뻗었다. 조각이 안된 나머지 팔찌 부분도 동물의 몸통처럼 보이게 구성된 이 작품은 물체의 형태와 조각된 상을 조화롭게 결합한 대표적인 예이다. 동물상은 따로 鑄造와 陽刻된 후 팔찌의 양단에 뿔질하여 붙였고 뿔과 귀는 따로 끼워진 것이다. 짐승의 눈과 코는 圓으로 표시되고 갈비뼈는 선으로 새겨졌다.³⁰⁾

(7) 우리나라 動物文

우리 나라 遺物에 보이는 스키타이 動物文은 주로 動物形 帶鉤에 나타나는데 북방유라시아 대륙의 청동기문화의 영향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적인 동물의장을 하고 있으며 青銅器末期에 출현해서 初期 鐵器時代를 거쳐 古墳時代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4)

青銅器時代 永川 漁隱洞 出土品(그림 14-1, 2) 馬形帶鉤는 청동제로서 팽팽한 체구에 갈기를 세우고 고리를 짧게 잡아매어 말이 가지는 動力感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허리 가슴에 線文帶가 있고 머리에는 革具가 線刻되고 배밑과 突起 고리에는 단추형 장식이 있다. 고리 끝에는 둥근 璧形 고리가 원래 모습대로 남아 있다. 말을 위에서 보면 馬身의 약 3분의 2가 鑄出되었고 3분의 1 부분이 잘리어 나가 편



〈그림 14〉 馬形 虎形帶鉤
-『韓國의 青銅器文化』

- 1, 2 永川 漁隱洞 出土 3 國立博物館 所藏
- 4 尙州 洛東里 出土 5, 6 傳 善山
- 7, 8 梨大博物館 所藏

평하게 되고 거기에 臀部 가까이 꼭지가 달려 혀대 끝을 걸도록 되어 있다. 虎形帶鉤는 꼬리가 사실적으로 등위로 올라가고 허리, 가슴의 장식 文帶도 좁아져서 크게 벌린 입의 齒牙形, 위로 불룩한 큰눈과 함께 보다 자연스러운 힘과 감정을 주고 있다.³¹⁾

송전대 박물관 소장 慶北 尙州출토 銅製 馬形帶鉤 7개³²⁾ 가 있으며,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尙州 洛東里출토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青銅馬形帶鉤(그림 14-4)³³⁾, 또한 영남대 박물관 소장 출토지 미상 青銅馬形帶鉤는 시베리아로 들어오는 스키타이 동물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물의 體身에 조각적인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³⁴⁾

加耶地域출토의 青銅 馬形帶鉤는 5개인데 말영덩이부분 뒤편에는 가죽띠를 걸기 위한 못대가리가, 앞가슴 쪽에는 띠고리를 걸기 위한 갈고리형 부속

30) Ibid, pp. 261-63, 272-73.
31)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 1, 原始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80, p. 155.
32)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圖版 80-81.
33) 국립중앙박물관(편) 『韓國의 青銅器文化』, 서울: 汎友社, 1992, p. 112.
34) 영남대학교박물관(편), 『박물관도록』, 1982, 圖版14, p. 115.

이 달려 있다.³⁵⁾

原三國時代 3C경의 유물로 추정되는 靑銅 馬形帶鉤가 천안 청당동유적에서 10개 출토 되었는데³⁶⁾ 형태는 <그림 14-4>와 비슷하다.

南韓출토의 銅製虎形帶鉤는 앞아 있는 虎形의 가슴에 끝이 꼬부라진 突起를 붙이고 뒷면에는 革帶의 끝을 거는 꼭지를 둔 것으로 호랑이는 꼬리도 四肢도 圖式的으로 표현했고 臀部, 腰部, 어깨에서 가슴, 四肢 그리고 顔面 등을 모두 서로 교차하는 集線文으로 장식하고 있다.³⁷⁾

靑銅器時代 金東鉉所藏의 大邱 飛山洞出土品은 虎像이 입을 벌리고 뒷다리를 쭉그린 형태로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³⁸⁾ 같은 지역 출토의 湖巖美術館 所藏品도 날카로운 이빨을 강조하고 있다. 國立博物館 所藏 虎形帶鉤(그림 14-3)는 <그림 14-1>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나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점이 특이하다. 嶺南大 博物館 所藏 虎形帶鉤(그림 14-5, 6)는 慶北 善山출토로 전해지고 있으며, 출토지 미상의 梨大 博物館 所藏의 虎形帶鉤(그림 14-7, 8)³⁹⁾가 있으나 <그림 14-1>에 비하면 좀 단순하게 만들어진 편이다.

또한 고구려 지역 출토 冠裝飾(그림 15)으로 전하는 遺物에서도 전체적으로는 그리핀모양을 하고 있으며 꼬리 모양이 'Scythe-shaped' tail양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 金銅 鳥形 冠裝飾

高句麗 平北 雲山 龍湖洞 1號墳 出土-『韓國美術全集』1

2. 스키타이계 動物文 分類 및 像徵性

이상으로 스키타이계 복식품을 중심으로한 장식품들의 동물문을 나타내는 유물들을 동물별로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스키타이계 動物文에 보이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동물양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 문화권에 따라 장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 지역은 역시 동물문의 원류가 되는 스키타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장식품에 사용된 動物文으로 한정되어 고찰되어서 각문화권에 다른 동물의 비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너무 적어 하나씩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2곳 이상의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動物文은 사슴, 양, 말, 맹수, 표범, 그리핀, 당나귀, 상상(복합동물: 예를 들어 독수리부리의 사슴 등)동물 등이다.

3곳이상에서 나타나는 動物文은 그리핀과 말 뿐이나 사슴문양은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金冠 즉 樹木鹿角形立飾冠에서 사슴뿔을 형상화한 녹각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⁰⁾

스키타이계 動物文들중 굽동물들은 흔히 머리를 앞이나 뒤로 향한 상태에서 두다리를 서로 포개어 접어 넣는 자세(그림 1, 2, 9, 11, 13, 14)를 취한다. 맹수는 서있거나 원형으로 웅크린 자세(그림 8)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맹수와 굽동물 모두 몸을 180도로 뒤트는 표현(그림 9)도 있다.

35)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圖版177, p. 149.

36) 국립부여박물관(편),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1993, p.40.

37) 金元龍(編), op. cit. p. 155.

38) 韓炳三(編), 『韓國文化財大系』 國寶2, 古墳金屬II, 서울: 藝耕文化社, 1986, 圖版154, p. 225.

39) 국립중앙박물관(편), 『韓國의 靑銅器文化』, p. 112.

40) 金文子, op. cit. p. 95.

〈표 1〉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分類

동물 문화권	코카서스	스키타이	사 키	알타이	타가르	사르마티아	우리나라
사 슴	1(plaque)	1(plaque)					
양	1(대구)	2(diadem, 팔찌)					
말	1(대구)		2(단추, 팔찌)				25(대구)
맹 금		1(대금구)					
맹 수		1(plaque)	1(torque)				
사 자		3(plaque, torque 2)					
표 범		1(plaque)	1(대구)				
호랑이							7(대구)
곰		1(반지)					
멧돼지		1(반지)					
그리핀		1(diadem)		1(두식)			2(관장식)
뱀		1(팔찌)					
새		1(귀걸이)					
오 리		1(반지)					
수 닭				1(혁대)			
당나귀				1(문신)	1		
산 양				1(문신)			
소					1		
늑 대						1(torque)	
낙 타						1(대구)	
상상(복합)동물				4(문신)		1(팔찌)	

동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외에도 신체를 面과 面으로 이루어진 능선(角)으로 처리하거나, 둥그스름하게 소위 원통으로 처리(그림 8)하였다. 또한 신체의 특정부위, 특히 견갑부에 나선, 혹은 소용돌이 모양의 문양을 삽입한 경우(그림 6, 9, 12, 14)도 많다. 또한 동물들의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묘사된 경우(그림 1-15 전부)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스키타이 동물양식의 한 특성이다.

스키타이인 들의 동물 표현들은 대부분 그들의 환경에서 선택되었으며 보통 野生의 동물들을 주로 묘사하게 되나 가끔은 길들이게 되었던 가축들도 표현되었다. 스키타이인 들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동물들의 모든 躍動하는 자세들을 單獨文속에 결합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이미지 속에 단독의 동물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가정할 수 없는 불

가사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를 單獨文 속에 담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동물적인 주제는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냥을 위한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한 부적으로서,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⁴¹⁾

스키타이계 動物文은 동물을 사실적으로 再現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한 이미지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장식성을 초월한 강렬한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다. 피를 흘리고 있는 동물과의 교감은 인간 존재의 根源이다. 유목민의 생활은 飼育하는 동물과 함께 군을 이루고 습격하는 野獸들과의 투쟁과 끝없이 이어지는 이동생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

41) T. T. Rice. *The Scythians*, London: Thames & Hudson, 1957, p. 147.

들의 적인 猛獸들은 위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神聖感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며 그 투쟁적인 강력한 힘은 存在感을 고취시켰다. 유라시아 유목민들간에는 일관되게 동물을 신성시하는 샤머니즘이 존재했다는 것이 확실하다.⁴²⁾ 또한 動物文은 동물조상이나 정신이 그들을 來世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의한 종교적인 표현이었다.⁴³⁾

IV. 結 論

이상으로 裝飾品들을 중심으로 스키타이계 動物文에 대한 遺例 및 양식, 像徵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스키타이계 動物文을 보여주는 스키타이 문화지역은 고대 초원의 길을 통해 북방유라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다. 즉 코반 문화, 스키타이 문화, 사키 문화, 알타이 문화, 타가르문화, 사르마티아 문화, 우리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스키타이계 動物文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는 많은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다양한 동물 종류가 사용된 지역은 역시 動物文의 원류가 되는 스키타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곳 이상의 문화권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動物文은 사슴, 양, 말, 맹수, 표범, 그리핀, 당나귀, 상상(복합동물)동물 등이다. 3곳이상에서 나타나는 動物文은 그리핀과 말 뿐이나 사슴문양은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관 즉 수목각형입식관에서 사슴뿔을 형상화한 녹각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스키타이계 動物文들중 굽동물들은 흔히 머리를 앞이나 뒤로 향한 상태에서 두다리를 서로 포개어 접어 넣는 자세를 취한다. 맹수는 서있거나 원형으로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맹수와 굽동물 모두 몸을 180도로 뒤트는 표현도 있다.

동물을 과장되게 표현한 외에도 신체를 능선(角)으로 처리하거나, 원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신체의 특정부위를 나선, 혹은 소용돌이 모양의 문양을 삽입한 경우도 많으며, 또한 동물들이 측면으로 묘사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역시 스키타이 동물양

식의 한 특성이다.

스키타이계 動物文으로 분류되는 우리 나라 帶鉤에 나타난 馬와 虎 등의 동물문은 좀더 사실성에 치우친 양식이 보이고 있으나 간략화된 형태와 묘사로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고구려 冠裝飾에 보이는 꼬리 모양은 전형적인 스키타이계 樣式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이 스키타이계 動物文은 동물들의 약동하는 다양한 자세를 單獨文 속에 담아냈는데, 동물을 사실적으로 再現하지 않고 이미지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장식성을 초월한 강렬한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 동물을 신성시하는 샤머니즘이 존재했으며,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한 부적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 論文은 스키타이 動物文 樣式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服飾品을 중심으로 한 裝飾品에 나타난 動物文만을 考察한 것이므로 그 遺物의 숫자나 양식 研究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또한 각 동물종류에 다른 비교는 遺物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각각의 비교는 하기가 어렵고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스키타이계 動物文의 樣式과 像徵性만을 考察하였음을 밝혀둔다.

■ 參考文獻

- 1) 加藤九祚, [스키타이의藝術], 東京: 新時代社, 1970.
- 2) 岡本太郎, “騎馬民族の呪力”, [新潮古代美術館], 東京: 新潮社, 1982.
- 3)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東京: 中央公論社, 1967.
- 4) 국립부여박물관(편), [국립부여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1993.
- 5) 국립중앙박물관(편), [스키타이 황금], 서울: 조

42) 岡本太郎, “騎馬民族の呪力”, 『新潮古代美術館』, 東京: 新潮社, 1982, p.124.

43) E. D. Phillips, *The Roral Hordes*, London: Thames & Hudson, 1965, p.63.

- 선일보사, 1991.
- 6) _____, [韓國의 靑銅器文化], 서울: 汎友社, 1992.
- 7)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2.
- 8)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源流], 서울: 民族文化社, 1994.
- 9)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 10)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73.
- 11) 金元龍(編), [韓國美術全集] 1 原始美術, 서울: 同和出版社, 1973.
- 12) 梅原末治,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京: 一雄, 1960.
- 13) _____, [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東京: 新時代社, 1971.
- 14) 문광희(역) 杉本正年,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1995.
- 15) 閔丙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長澤和俊 著, 서울: 民族文化社, 1993.
- 16) 영남대학교박물관(편), [박물관도록], 1982.
- 17) 정석배, “ ‘사카’ 와 스키타이 동물양식”, 중앙아시아학회 발표논문, 1999.
- 18) 崔淳雨, [韓國美術], 서울: 陶山文化社, 1982.
- 19) 河内良弘(譯注), [騎馬民族國家] 1, 東京: 東洋文庫, 1971.
- 20) 韓炳三(編), [韓國文化財大系] 國寶2, 古墳金屬II, 서울: 藝耕文化社, 1986.
- 21) Dogny Carter, *The Symbol of the Beast-the animal style art of Eurasia*, New York: The Ronard Press Co, 1957.
- 22) E. D. Phillips, *The Roral Hordes*, London: Thames & Hudson, 1965.
- 23) Henry. N. Michael(ed.), *Studies in Siberian Shamanis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2.
- 24) H. Rubissow, *Art of Asia*,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Inc., 1954.
- 25) M. I. Artamonov,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ova, 1966.
- 26) S. I. 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trans M. W. Thomps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0.
- 27) T. T. Rice, *The Scythians*, London: Thames & Hudson, 1957.
- 28) http://www.hermitagemuseum.org/imgs_En/03/artwork/e3_2_6g_scythian_bronze_plaque.jpg
- 29) http://www.pitt.edu/~haskins/sites/AK_Burun.jpg
- 30) <http://www.kz/usr/eng>
- 31) <http://pages.sssnet.com/7genex7/basic.html>